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제 40 - 8 호

2023년 2월 19일

- 오늘은 각 학교의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중 학교 : 김보경
고등학교 : 엄하민 유희정 최지수
대 학교 : 김소원 임세진 석지인 석지원
대 학 원 : 최기찬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박현수(김영희)집사님께서 15일(수) 허리를 수술하셨습니다.
- 공동체 정원과 주변 나무들을 가지치기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 4차 정기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입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정기모임 : 20일(월) 12시. 밝은누리공동체.
-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총회 : 23일(목) 11시. 새이래기독교학교.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생일) 권사 가정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Keep Going의 뜻은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사랑방공동체의 나무를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체에 설 곳과 그늘 그리고 많은 낙엽들을 가져다 주었던 윗 운동장과 주변을 둘러 싸고 있었던 나무들을 정리 했습니다. 성인의 몸통과 다리 정도 굵은 나무들을 보니 사랑방공동체에서 그동안 자라왔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양 또한 엄청나게 많아서 윗 운동장에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유독 눈이 와서 쌓였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정하기가 힘들었는데 봄 되기 전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 부지런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막상 그 쌓여진 양을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2-3일 꾸준히 하다보니 나를 수 있도록 다듬을 수 있었고 멋쟁이 학생들이 도와줘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막연하게 생각될 때가 있고 방법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어려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끝이 어디인지 몰라서 더 길게만 느껴졌던 군생활의 행군이 저에게는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을 알고 있다면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과정을 시작하여 마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과정이 비록 길고 우여곡절이 느껴지지만 정작 마무리까지 하게 되면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마무리 지었다는 뿌듯함, 어려운 산행에

서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느낌처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서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이 곧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들로 근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의 과정을 잘 마치라고 격려하는 말씀들로 위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다가 마쳤는지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마쳤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졸업과 같은 마침 후에 새로운 입학과 같은 시작을 만납니다. 새로운 것은 쌓여있는 나무처럼 위압감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를 주기도 합니다. 높고 낮은 과정의 흐름 속에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잠깐의 쉼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힘들을 잇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과정, 어느 위치에 있든지 Keep Going! 계속해서 성숙한 기쁨을 누립시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 말씀

“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
<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516 438 / 546

기도 : 이재신 집사

성경 : 요한복음 14장 1~14절

제목 :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큰 일

1-3 약속된 하나님의 집

관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을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해석: 예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근심하게 된다.

적용: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갖자.
구원의 확신으로 근심하지 말자. 근심을 이겨내자

4-11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방법

관찰: 예수는 길, 진리,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해석: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 모습을 보고 믿어서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적용: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성경을 바르게 읽고 믿자.

12-14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일

관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한 일을 할 것이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구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적용: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성서일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를 알리자.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요.”

안녕하세요. 이어직 집사입니다.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영화 대사입니다. 안부를 물을 때 쓸 말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영화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메아리만 치는데 그래도 좋아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살아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덕분에 교회의 변화에 둔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벌써 부산 인근에서 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우리 식구들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안부를 물어 전화합니다. 단순히 소식이 궁금해서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연락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화를 하면서 저를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시려는 분들의 마음을 느끼기에 더 열심히 살아 보려고 전화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분들께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쉬었다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힘들고 고되기에 내 힘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고, 똑같이 힘든 시기를 보낸 어른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제가 사랑방공동체 소속인 것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삽니다. 그렇게 배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공동체 식구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저는 잘 지냅니다. ^^

사역공동체 이어직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11 : 6 인도자
3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출애굽기 34 : 6-7a 인도자
41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다니엘서 1 : 3 - 17 설교자
540 사랑방
“ 뜻을 세우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60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한태수 김순정/ 봉헌위원 : 백성복/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배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기도문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뜻을 세우십시오

제국의 자랑. 바빌로니아는 그 당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문화와 대단한 건축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국의 젊은 인재를 제국의 수도 바빌론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 마치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제국 문화를 그들에게 깊이 이식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중심 바빌론에서 최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최선의 지식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제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로 자신들의 식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뜻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최고의 문화와 최선의 기술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애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통치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뜻을 세웁시다.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윤희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작년 12월에 성경암송대회 선물로 각자 받았던 보드게임(할리갈리, 도블, 메모리카드, 젠가)을 가져와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규칙을 배우고 함께하는 재미를 키워가는 과정이 어떤 친구는 흥미로워서 계속하고 싶고 어떤 친구는 아직 어려워 빨리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기특하게도 꾸러기들은 시작한 게임은 좀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참여했고 계속하고 싶어도 다른 놀이를 하고 싶은 친구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꾸러기들의 일상입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꾸러기들은 평소에 부모님들과 자주 왔던 곳이라 익숙하게 책을 고르고 펼쳐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지막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하며 조용조용 제법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 한나절은 광릉수목원에도 가서 겨울나무가 늘어선 길을 걸었고, 목요일에는 체육시간에 줄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각자 사물함을 정리하고 자기 의자를 비롯한 의자 몇 개씩을 손걸레로 닦으며 한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3월에 만날 때 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며 다 같이 손을 잡고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며 헤어졌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학생을 다음 과정으로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동체 학교는 같은 터 위에 있기에 얼굴을 영영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점점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마주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6년의 시간동안 웃고 떠들고 때론 혼나는 일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채운 기도와 노력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흘러갑니다.
배움과 가르침

사은회로 그 마음을 표현하지만 어찌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울컥하는 마음을 추스르며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참신하게 선생님들이 졸업생들에 관한 문제를 풀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며 그 학생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6년의 시간동안, 혹은 더 긴 시간 학교와 공동체를 관계하며 의심, 화, 신뢰,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을 가지시면서도 함께 한 부모님들께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얼굴을 볼 순 없지만 아쉬운 마음을 담아 졸업생 각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멋쟁이의 힘을 느낀 한 주였습니다. 어린이 운동장부터 교실로 향하는 길목을 짝 채웠던 나무들을 함께 힘을 모아 치웠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니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고 3시간 만에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등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봄 학기가 끝났습니다. 3월부터는 새 학년으로 만납니다. 1학년은 첫 후배를 맞이하고, 2학년은 저학년의 중심이 되고, 3학년은 고학년으로 올라갑니다. 4학년은 학생 임원이 되고, 5학년은 6년을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 한 해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돌아보고, 함께한 담임 선생님과 인사도 나누며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토요일엔, 6학년 멋쟁이들이 사은회를 준비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학년들은 마무리하는 소감을, 선생님들은 어른이 되는 멋쟁이들에게 전하는 말을 나누며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랑방 공동체 학교 연합 졸업식이 있습니다. 멋쟁이학교에서는 엄하민, 유동우, 유희정, 지은수, 최지수, 총 5명의 멋쟁이가 졸업을 합니다. 졸업 후에도 멋쟁이로서, 멋쟁이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장성아 >

가지치기

공동체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공동체에 서 있는 나무들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자라고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었던 묘목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늘에 닿을 것처럼 당당한 모습입니다. 크게 자라기도 했지만 마음대로 자란 나무들을 길게 자라 지저분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가꾸는지 잘 모르는 저로서는 잘려나간 가지들과 나무들을 보며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되지만 이렇게 해 줘야 더욱 잘 자라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다 자르고보니 잘려나간 나무들, 가지들이 참 많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힘에 부쳐 계절학기 중인 멧쟁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상에 앉아 계속 공부만 하다가 밖에 나와 땀 흘려 일하니 이것도 즐겁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거대한 나무 한그루가 꿈쩍도 안합니다. 정리하는데 방해가 되어 줄을 묶어 함께 당기니 쉽게 움직입니다. 역시 함께 힘을 모아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정신없이 널려있던 나무와 가지들이 정리가 되니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공동체와 뒷마을 사이의 나무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개학을 하면 놀라며 아쉬워 할 어린이 학생들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웃하고 있는 마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좀 더 과감하게 정리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항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 중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공동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 가지치기처럼 생명을 더욱 잘 자라고 풍성하게 만들며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아 계속 정리 중인 공동체 일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218장 211장

성 경 : 요한복음 12장 1-8절

말 씬 : 정성을 다하는 섬김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복구를 위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일어난지 벌써 9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조되어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두막 공동체>
오두막 식구들 중에 여전히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이재영 대표와 사모님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지체들을 위한 기도>
졸업을 앞둔 학생들과 연합 졸업식을 위해서
중국에 출국 중인 식구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에 있는 나무들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위 운동장 전체를 채우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는 길을 막을 정도로 많은 양의 나뭇가지들이 생겼습니다. 생활공동체 남자분이 다음 날 하루 종일 나무를 분류하고 잔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멧쟁이들과 함께 나무들을 정리하고 모닥불 주변에 장작을 쌓기도 했습니다. 잘려나가는 나무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더 튼튼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의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돈되고 더욱 풍성해진 나무들이 공동체 주변을 아름답게 해주리라 기대해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